

佛書속에 表現된 服飾의 構造와 形態研究

—高麗時代를 중심으로—

국립창원대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채 금 석

目 次	
I. 序 論	3. 彌勒下生經變相圖에 나타난 服飾分析
II. 高麗佛書의 樣式的 特性	4. 地藏菩薩圖에 나타난 服飾分析
III. 十王圖의 服飾構造	V. 結 論
1. 十王圖에 나타난 服飾分析	참고문헌
IV. 高麗佛書(탱화)와 服飾構造	ABSTRACT
1. 觀經變相圖에 나타난 服飾分析	
2. 水月觀音圖에 나타난 服飾分析	

I. 序 論

服飾이나 繪書는 한 時代의 思想, 價値觀, 風俗 등을 반영하는 時代的 產物이며, 때로는 개개인 정서의 表現手段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역으로 그러한 시대적 산물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미루어 볼 수 있는데 복식유물의 보존한계성으로 인해 주로 회화 작품들에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 겨레의 사상은 상당 기간 불교에 의하여 가꾸어져 왔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가장 강력히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高麗佛書에 나타난 권속이나 衆生들의 복식의 형태와 색채의 표현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고려의 服飾構造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高麗佛書를 본 연구 자료의 일환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려시대의 목판화 및 탕화 속에 나타나는 諸服飾의 發端 및 形態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문헌상의 복식표현과의 밀접도를 파악해보고 나아가 佛書를 服飾史 연구의 한 방편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공함에 있다.

연구의 범위는 1246년 高麗 숙종 33년에 제작된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十王圖와 1300년대 이후에 제작된 觀經變相圖, 彌勒下生經變相圖, 水月觀音圖, 地藏十王圖 등에 나타난 권속과 衆生들의 복식을 왕, 왕비, 관원, 시녀, 서민남녀로 분류하여 그 형태를 관찰하고 우리나라 복식요소와 外來요소(中國)를 구분하여 고려시대 복식의 普遍性과 特秀性을 밝혀서 그 구조를 규명한다.

그러나 자료 대부분이 오랜 시일의 경과로 색의 퇴색 또는 복원에 의해 색채의 확실성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II. 高麗佛書의 樣式的 特性

高麗의 佛敎는 개인적인 信仰보다는 국가의 安泰와 民衆과 守護를 위한 국가적인 護國信仰에서

그 용성을 보게 된 것이다. 크케는 外敵調伏과 國家安泰를 위하여 寺刹을 건립하였으며 인간의 冥福을 위한 寺刹, 佛寺刹의 봉안, 불탑의 공양이나 불화의 奉祀가 매일 같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건국 당시부터 密敎에 대한 신앙과 관심이 매우 깊었으며, 고도로 발달된 神秘主義의 密敎는 철학적 思惟의 극치이며 가장 원시적인 呪術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첫째, 자기를 無化하여 절대자에게 歸依하는 신앙형태라기보다는 인간세계의 생생한 감각을 긍정하고 有效하게 활용함에 의하여 聖俗一體의 체험을 얻으려 한다는 점과 둘째, 밀교가 색채에 상징적 의미를 내포시켜 그를 상징으로써 감각을 통하여 直觀的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에서 밀교가 색채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¹⁾ 이러한 밀교가 조형적 표현을 중시하여 지금까지 불교가 추상적으로 說한 우주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曼荼羅인 것이다. 만다라의 색채는 원칙적으로 靑, 黃, 赤, 白, 黑의 五色이며 이 五色은 五大, 五根 혹은 五智라고 하는 정신용을 상징한다.

고대복식에 사용된 색의 의미나 모든 복식이 천·지·인 삼재의 結合像으로 곧 하나의 우주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密敎的인 의미와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十王圖의 服飾 構造

1. 十王圖에 나타난 服飾分析

死後 시왕에 의해 받게 될 심판의 결과 六道還生中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생전에 善業의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경과 함께 圖解한 것이 十王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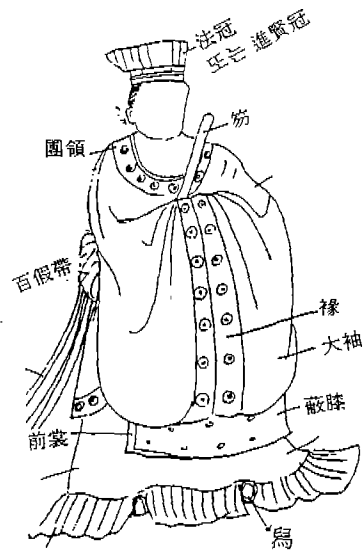
본 논문에 자료로 사용된 시왕도는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 1246년 이후에 제작된 死者가 각 십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

10매(이후 後十王圖라 칭함)와 또 다른 하나의 고려 1246년에 제작된 鄭晏의 “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이란 제목과 함께 여래, 보살, 시왕, 판관, 장군, 鬼王, 동자, 使者 등 120명의 인간상이 그려져 있는 9매로 구성되어 있고(이후 前十王圖라 칭함) 그 이외에는 經이 적혀있다.

시왕도에 나타난 인물을 大別해 보면, 각 대왕, 판관, 동자, 시녀, 사자, 귀녀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服飾의 인물과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각 대왕은 王으로 判官과 鬼王은 관원 1, 2로, 동자는 소동, 사자는 무관 등으로 지칭하여 그 복식을 분석했다. 시왕도는 판화이브로 채색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형태만을 파악했다.

시왕도에 나타난 복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왕은 冕冠, 法冠, 進賢冠, 梁冠類에 속하는 형태의 관모를 착용하였고 袍의 領과 수구에 環狀무늬의 단이 둘러져 있는 團領과 交領의 대수포와 장군을 입고 胄飾과 百假帶를 하고 笏을 들었다.(그림 1)



〈그림 1〉 前十王圖 鬼王

1)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출판부 1881, p.58

〈丑 1〉 前後十王圖의 服飾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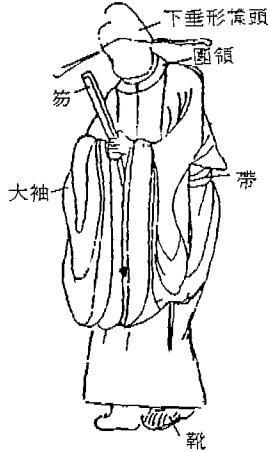
	種類 人物	頭飾斗冠帽	袍	襖	下衣	帶	신	기 타	備 考
前圖	王(1)	冕冠	大袖(大)袍, (團領)中單	襖	鳳尾裙	白假帶	烏	副珠, 裳, 笏, 紳	옷깃(領)의 과임이 길고 領, 袖口에 環狀무늬襟
	王(8)	法冠, 進賢冠	大袖(大)袍, (團領)中單	襖	鳳尾裙	白假帶	烏	副珠, 裳, 笏, 紳	
後圖	王(9)	梁冠	大袖(大)袍, (交領)中單	襖		大帶 白假帶		笏, 紳	領, 袖口에 環狀무늬襟
前圖	官員, 判官(6)	展脚幘頭	大袖(大)袍, (團領)		裙		靴	笏	袍의 기장 : 반목 袖口의 環狀무늬襟
	(40)	展脚幘頭	大袖(大)袍, (團領)		裙		靴	笏	袍의 기장 : 중아리 袖口에 環狀무늬襟
後圖	上級	下垂形幘頭	大袖(大)袍, (團領)				靴	笏	袍의 기장 : 발목
	下級	下垂形幘頭	筒袖袍, (團領)		窮袴		靴		袍의 기장 : 중아리
	侍從	下垂形幘頭	窄袖袍, (團領)		窮袴		靴	行纏(?)	袍의 기장 : 무릎
前圖	官員2, 鬼王	鹿帽形	大袖(大)袍, (團領)		鳳尾裙			笏	옷깃의 과임이 길다, 領, 袖口 環狀무늬襟
後圖	侍女1	花冠(白玉)	大袖(大)袍, (交領)		鳳尾裙			紐	
	侍女2	高髻	大袖(大)袍, (交領)		鳳尾裙			篸	
後圖	小童1(童子)	雙紒形	大袖(大)袍, (交領)						領, 袖口, 端에 環狀무늬襟
	所童2	雙垂紒形	大袖(大)袍, (交領)		鳳尾裙				袍의 端 : 曲居
前圖	武官1(使者)	展脚幘頭	大袖(大)袍, (團領)		裙				袍의 기장 : 무릎 袖口에 環狀무늬襟
	武官2(使者)	上折脚幘頭 團范幘頭(?)	窄袖, (團領) 窄袖, (團領)		窮袴 窮袴	帶 帶	履 履		袍의 기장 : 무릎 袍의 앞자락을 帶에 걸어들어 입었다.

※ 前十王圖 : 前圖

後十王圖 : 後圖

袖口가全體 옷기장의 $\frac{1}{2} \sim \frac{2}{3}$ 에 해당하는 것은 大袖(大)로 表現

官員은 관모로 展脚복두, 下垂形복두, 上折脚복두를 썼고 수구와 령에 흑선이 있는 포를 입었으며 이 袍는 지위의 상하에 따라 수구의 넓이와 길이에 차이가 있다.<그림 2, 3, 4>



<그림 2> 高地位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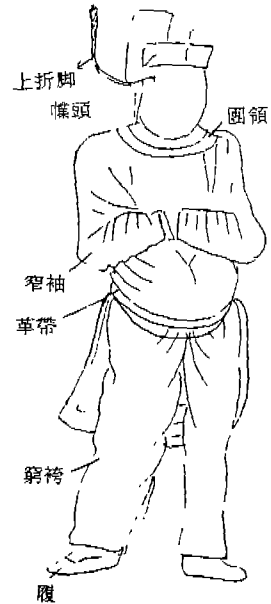


<그림 3> 下級官員



<그림 4> 侍從

武官은 展脚복두, 上折脚복두를 쓰고 文官은 袍보다 길이가 짧고 착수인 단령의 포를 입었다.<그림 5, 6>



<그림 5>



<그림 6>

侍女는 고계의 발양에 花冠으로 장식하고 교령의 대수포에 표를 입었다. <그림 7>



<그림 7> 後十王圖 侍女

小童은 발양으로는 쌍개형과 쌍수개형이 나타나며 領, 袖口, 端에 환상무늬의 단이 있는 교령의 대수포를 입었다. 특히 이 袍의 端은 曲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그림 8>



<그림 8>

IV. 高麗 佛畫(탱화)의 服飾 構造

1. 觀經變相圖에 나타난 服飾 分析

현존하고 있는 관무량수경변상도는 日本 大愿寺 소장의 관경서본변상, 知恩院 소장의 관경변상, 西福寺 소장의 관경서본변상과 변경변상도 등 4점으로 觀經變相圖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의 배경을 이루는 淨土敎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淨土란²⁾ 彌勒蛇佛의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우리들이 사는 세계인 사바세계와는 대칭되는 상반개념으로 즉, 淨土敎란 彌勒蛇佛의 정도에 왕생하는 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壽命長壽하고 죽어서는 極樂往生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彌勒

2) 홍윤식, 「고려불화의 연구」 p.35

蛇佛의 극락세계를 觀無量壽經思想을 중심으로 하여 圖象畵한 것이 觀경변상도이다.
3쪽의 觀경변상도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식중 비

교적 심세하고 알아보기 쉬운 것을 골라 王, 王妃, 官員, 侍女, 貴婦人, 僧으로 분류하여 그 형태와 구조를 삼도로 나타내고 표 2로 작성하였다.

<표 2> 觀經變相圖의 服飾構造

種類 人物	頭飾 및 冠帽	袍		襦		下衣		帶		신		기 타	備 考		
	色	色	色	色	色	色	色	色	色						
男 王1	遠遊冠9梁	金	大袖(大)袍, (交領)中單	黑	襦	白	裙	湖	帶			方心曲領, 蔽膝 (赤), 玉環綵			
王2	遠遊冠9梁	金	大袖(大)袍, (交領)中單	白	襦	白		白	束帶	黑		方心曲領, 蔽膝(赤)	袍, 領, 袖口 에 黑襟		
王3	幅巾, 開制	黑	大袖(大)袍, (交領)中單	白	襦	白	裙	白	大帶 白假帶	赤 綠 白	烏	赤	袍의 領, 袖口, 端에 黑襟, 裙 의 居端에 黑襟		
官員-1	下垂形幘頭	黑	大袖(大)袍, (圓領)	紫	襦				紅帶	紅	靴	笏			
官員-2	幘頭	黑	窄袖, (圓領)	黑	襦	白			束帶	紅		腰	腰袂	襦의 도련에 紅 襟	
官員-3	龍狀冠帽	金			①襦(交領, 大袖(中)) ②襦	白	裳(曲裾)	赤			赤	長鞞靴	鐵	金騰蛇, 腰袂 勒巾, 胸結 裳: 居端에 黑 襟	上衣: 領, 袖口 에 黑襟 裳: 居端에 黑 襟
官員-4	幅巾, 開制	黑	大袖(大)袍, (交領)	白	襦	白	裙	白	大帶 白假帶	白			佩綬, 蔽膝, 勒巾 (赤)(赤)(白)	袍: 領, 袖口端 黑襟 裙: 居端黑襟	
官員-5	幅巾, 開制	黑			襦(交領, 大 袖(中))	白	裳(曲裾)	白	束帶 2	綠	長鞞靴	黑	金騰蛇, 束帶 (綠)	上衣端: 黑襟 裙居端: 黑襟	
官員-6	幅巾, 開制	黑			襦(窄袖)	白	窮袴	白	束帶 2	綠	長鞞靴	黑	金騰蛇, 옷가리개		
官員-7	幅巾, 開制	黑			①襦(圓領, 窄袖) ②襦	白	窮袴	白	束帶 3		長鞞靴	黑	金騰蛇, 옷가리개		
女 王妃-1	花冠, 高髻 (머리지형)		大袖	黃	襦	白	裙	白	帶	綠			裙(綠), 날개形 견장? 膝袂, 裊	袍: 袖口, 領端 黑襟	
王妃-2	花冠, 高髻 紅 띠	綠	半臂袍 大袖	紅	襦	白	裙	白	百假帶		烏	赤	襦(綠), 蔽膝 (赤)狐尾褙衣 (?)	半臂: 袖口에 구름장식 袍: 袖口에 黑 襟	
侍女	高髻, 紅 띠				襦	紅	裙	白	帶	百	高鼻履	赤	襦(百), 향낭, 狐尾褙衣?		

貴婦人1	雙垂衿形 紅巾	大袖(大), 交領	외갈색	襪	외	裙	갈					襪(赤), 勒巾(白)	
貴婦人2	下垂形?	大袖(大), 交領	黑紫	襪	외	裙	赤	束帶	赤紫			袍: 袍口 襪: 紫色	
僧-1		大袖(大)袍, (交領)	黃	襪	白	裙	壞	束帶	연장	草履?		紫黃貼附襪裝 裝	偏袒右肩
僧-2		大袖(大)袍, 交領		襪	白	裙	壞					襪裝(갈색)	偏袒右肩
僧-3		大袖(中) 大袖(中)	黑紫 黑	襪 襪		壞						貼附襪裝 (외갈색) 貼附襪裝	偏袒右肩 偏袒右肩

王의 관은 전면에 적색의 선을 두른 博山 모양이 나타나 있고 관의 양 귀 옆으로 적색 纓이 있고 턱 밑에서 묶은 형태로 보아 9량의 원유관으로 보인다. 원유관의 형태는 蟬 九首를 붙이고 앞의 삼면을 칠보로 장식하며 양쪽에 冠纓인 組纓을 달고 있고 簷角의 簪導를 꽂았다고 하며 「국조오례의」에 원유관은 9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각각마다 玉 18과를 달았다는 「大明集禮」의 기록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것으로 明의 賜與以前 고려에서는 이미 원유관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의 복식으로는 領, 袖口에 흑단이 있는 포를 입었고 포위로 方心曲線이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방심곡령을 처음 사용한 것은 세종 8년 正月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명의 定制가 생긴 이후에는 고려시대에 사용하던 방심곡령이 없어졌다. 고려시대에 사용하던 방심곡령은 어깨 뒤로 끈을 엮갈려 늘어뜨린 형태의 宋式 方心曲領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유와 군을 착용하였다. <그림 9, 10>



<그림 9>



<그림 10>

官員은 下垂形복두와 龍狀冠帽을 쓰고 開刺의 발양에 복건을 썼으며 령, 수구,居에 단이 있는 유나 대수포를 상의로 입고 曲居의裳이나 궁고, 군을 하의로 입었다.<그림 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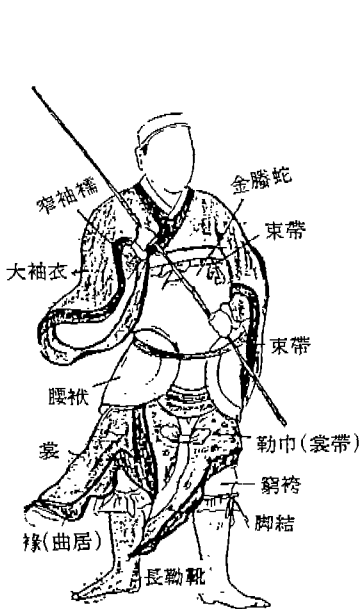
<그림 11>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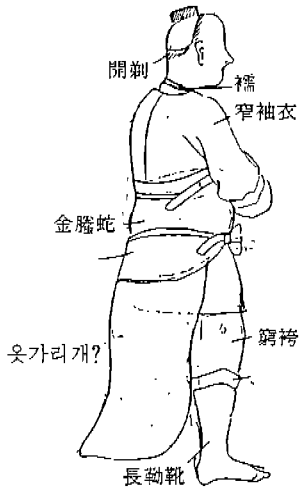
<그림 14>



<그림 13>



<그림 15>



<그림 16>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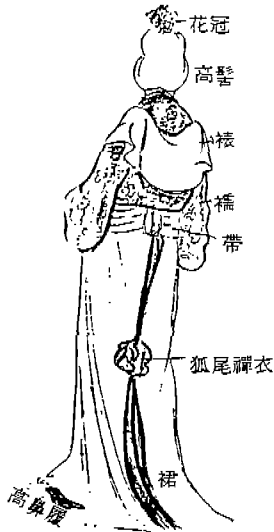


<그림 17>



<그림 19>

王妃는 고계에 조선시대 띠구지형태와 비슷한 金花細飾이 화려하게 장식된 나비형상의 화관을 쓰거나 고계에 紅色의 띠를 묶어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수구와 령, 단에 黑단이 있는 黃色대수포와 수구에 주름장식이 된 홍색 반비를 입었고 백색 유와 군을 입었다.<그림 18, 19, 20>



<그림 20>

侍女の頭式은 왕비와 비슷하게 고계에 홍색의 띠로 장식하였고, 紅色 또는 綠色의 交領우입의 유를 입고 그 위로 백색 군을 입었다.

또 貴婦人은 쌍수개형의 발양에 紅色띠로 장식하고 교령의 대수포에 유, 군을 입었다.

이밖에 儻의 복식이 나타나는데 교령의 대수포와 유와 군, 발고랑 무늬가 새겨진 袷裝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가슴밑으로 둘렀다.

2. 水月觀音圖에 나타난 服飾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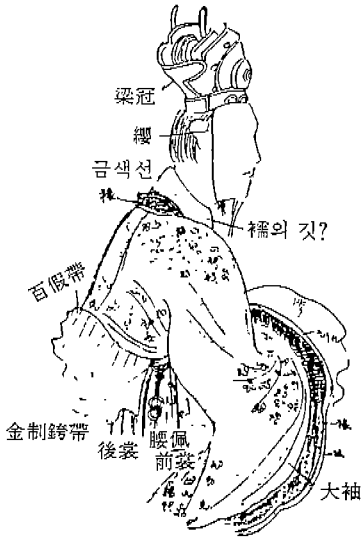
1320년대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복식구조를 도표 3에 정리하였고 또 그 복식의 형태와 구조를 도상화 하였다.

왕은 12支神像中的 하나를 표현한 것 같은 형태로 赤과 綠色의 구슬을 장식하고 冠의 양쪽에 뿔 형태가 장식되어 있는 梁冠類를 쓰고 관의 양옆에 朱色組를 달아 목 밑에서 고정시켰다. 이런 형태의 관은 고려시대 문관의 梁冠으로 조선시대의 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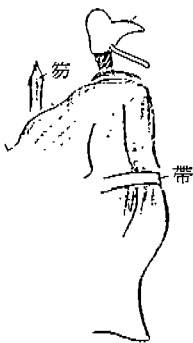
<표 3> 水月觀音圖의 服飾構造

人物	種類	頭飾 및 冠帽	袍		襦		下衣		帶		신	기 타	備考
		色	色	色	色	色	色	色	色				
男	王	梁冠	金 大袖(大)袍, (交領)中單	黃 ①襦	白		金制跨帶 白假帶	白				赤袋(前,後), 腰佩	袍: 袖口, 領에 綠線, 金線
	官員-1	下垂須彌頭	黑 大袖(中)袍, (團領)	青 ①襦	白		帶	黃				笏	
子	官員-2	巾	黑 筒袖, (團領)	襦	白	斜袴 寬袴	白	帶	紅	靴	綠		
女	王妃	高髻 (金花細飾)	半臂 大袖(大)袍 中單			裙	白					견장, 釧, 祲 (綠), 襪	
	貴婦人-1	高髻 (金花細飾)		①襦 ②襦(白紵衣)	黃白	裙	紅					뿔고동형, 革	襦의 기장이 약간 짧아지고 帶가 없어짐. 裙의 尾端에 白色線
	子 貴婦人-2	高髻 (金花細飾)		①襦 ②襦	綠 黃	裙	綠	帶	赤			緋裏	

冠이 後則 圓形인데 비해 角形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구와 령에 녹색 단을 대고 다시 그 가장자리에 황금색의 단이 가늘게 쳐 있는 금박무늬가 화려한 황색의 대수포와 허리에는 金製과대를 매었다.³⁾ <그림 21>



<그림 21>



<그림 22>

관원은 하수형복두를 쓰고 연한 청색 바탕에 금색 무늬가 새겨진 대수포를 입고 황금색帶를 하고 홀은 든 것으로 보아 公服으로 짐작된다. <그림 22>

왕비는 고계에 각종 금화세식을 하고 수구에 녹색의 깃털장식을 한 미색의 반비포를 입고 그 속에 령과 수구에 연갈색의 단이 있는 대수포를 입고 어깨에는 구슬장식이 된 팔저형태의 鍬이 끼워져 있다. 또한 반비포의 양어깨와 등에는 갈색, 녹색, 황색의 단이 들려있는 견장같은 날개형 장식이 달려 있는데(그림 23) 이런 형태의 복식이 唐의 吳道子가 그린 送子天王圖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왕비가 하던 어깨장식으로 간주된다.

貴婦女의 복식은 고계에 금화세식을 하고 흥띠로 묶어 늘어뜨렸으며 황색이나 녹색의 襦에 백색 袴를 겹쳐 입고 紅, 綠의 군을 입었다. 특히 유의 기장은 둔부선에서 약간 짧아졌으며 대가 없어지고 대신 옷고름 형태로 좌측에서 동여 매었다. 이에 의하면 유의 기장이 짧아지고 고름이 생긴 시기를 원복속기인 132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4>



<그림 23> 王妃

3) 황호근,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 일지사 1886, p.231

3. 彌勒下生經變相圖에 나타난 服飾 分析



<그림 24> 貴婦女 1, 2

彌勒下生經變相圖에 나타난 복식은 고려 1350 년대의 복식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王, 王妃, 官員, 侍女, 一般人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彌勒下生經變相圖의 服飾構造(1350年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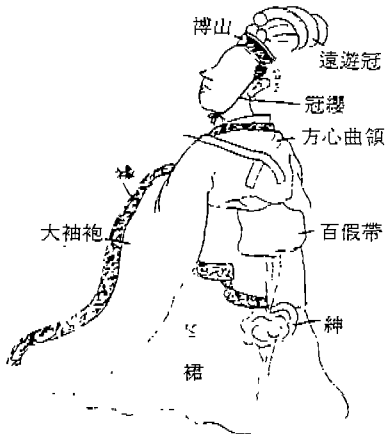
人物	種類		袍		襦		下衣		帶		신		기 타	備考	
	頭飾	髮冠帽	色	色	色	色	色	色	色	色	色				
王	連遊冠(7梁)	金	大袖(大)袍 (交領)中單	襦	白	鳳尾裙	白	百假帶	白	烏	赤	方心曲領, 紳, 笏, 蔽膝(赤)	袍: 領, 袖口, 端黑襟		
	梁丹式髮形		大袖(大)袍	襦	白	鳳尾裙	黃					蔽膝(赤), 玉環綬	袍 袖口, 領 黑襟		
男	官員1(上)	梁冠(6梁) 武冠(冠)	大袖(大)袍 (交領)中單	襦	白	裙	黃 金	百假帶	白			蔽膝(赤), 玉環綬, 笏	袍 袖口, 領 黑襟		
	-2(下)	折上脚幘頭	黑	圓領, 窄袖 圓領, 大袖(中)	黃 襦	白						부채	합	大袖袍의 袖口, 領에 黑襟	
	-3(下)	下垂形幘頭	黑		襦(圓領, 大袖(中))	黃 白	烏袴	白							襦기장: 무릎
	-4(下)	道賢狀委貌	황금		襦(圓領, 窄袖)	黃	烏袴	白	帶	黃					
	8人	冠類? 연꽃冠			①襦(圓領, 窄袖) ②襦 襦(圓領, 窄袖)	黃 黑 黑	烏袴	白	帶	黃 黑					
子	一般人-1				①襦(圓領, 窄袖) ②襦 襦(圓領, 窄袖)	黃 黑 黑	烏袴	白	帶	黃					
	-2				襦(交領, 右衽)	白	烏袴	白							襦의 기장: 둔부선
	農民 72				襦(交領, 右衽)	白	橫鼻襪		帶						襦의 기장: 둔부선
					襦	黃土	烏袴	白	帶						襦의 기장: 둔부선
					襦	白	기저귀?		帶						襦에 옆트임이 있다.
				①襦 ②襦	黑	烏袴	白	帶							

女	王妃-1	花冠, 高髻 紅 띠	①半臂袍 ②大袖(大)袍	黃金 襦 黃金	襦	白	鳳尾裙	黃金			翡翠毛, 襦 (綠)後裁, 紳	袍 袖口, 領 黑襪	
	-2	契丹式髮形	①半臂袍 ②大袖(大)袍 中單	黃金 襦 黃金	襦						翡翠毛, 鳳尾 (赤)玉環綫	大袖袍袖口黑襪	
子	侍女-1 (5人)	隋馬髻(1) 쪽진머리, 高髻(3), 高髻, 花冠(1)	交領, 大袖(大)	綠 襦	白						襦(赤), 玉環 綫	領, 袖口, 黑襪	
			①半臂 ②大袖(大)袍	白 襦 黃金		裙	白					翡翠毛, 玉環 (赤), 玉環綫	袍 袖口 黑襪
			大袖(大), (交領)中單	綠 襦	白							襦(赤), 玉環 綫	袍, 領, 袖口 異色~
	侍女-2 (4人)	雙垂髻形 紅 띠	大袖(大) 中單	白 襦	白	裙	白				襦(赤)	袍, 袖口, 端 黑襪, 曲居	
			大袖(大)	黑青 襦	白	裙	白				襦(赤)		
			大袖(大)	綠 襦	白	裙	白			襦(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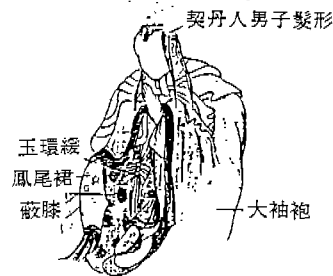
왕은 帽의 전면에 赤色博山이 加해진 7梁의 圓 유관형태의 冠을 쓰거나 양귀옆으로 소량의 머리 를 늘어뜨리고 정수리 부분은 삭발한 형태로 契丹 人의 계형과 비슷한 발양을 하였고 복식은 紫黃色 의 교령의 대수포에 袍의 領, 수구 아랫단에는 흑 단이 들려져 있고 포의 길이는 臀部선이다. 百假 帶를 하였고 黃金色襪의 居端에는 주름 裝飾 緣이 있으며 이를 鳳尾裙이라 지칭한다. 손에 홀을 들고 있는 점으로 왕의 朝服으로 생각된다. <그림 25, 26, 27>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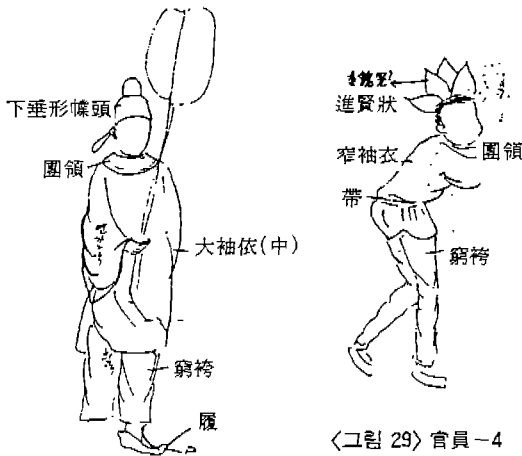


<그림 25> 王-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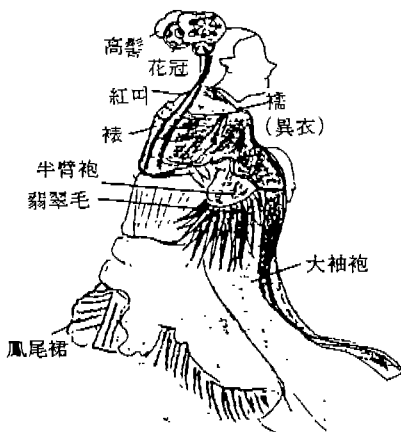
<그림 27> 王-2

官員은 下垂形복두와 황금색의 연꽃잎이 여러 겹 겹쳐진 형태의 관모를 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 한나라에서 사용하던 秀貌冠中の 進賢狀으로 보이며 상의는 회색, 흑색, 황토색의 단령의 착수의를 입고 하의로 백색 窮袴를 입었다. <그림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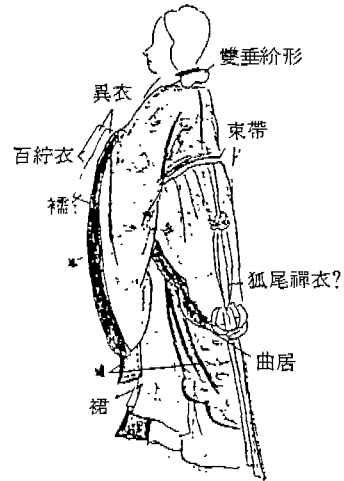
<그림 28> 官員-3

王妃는 고계로 結髮하여 없고 화관을 썼으며 화관 밑으로 홍피가 늘어져 있다. 황금색 대수포의領과 袖口에 흑단을 두르고 포위에는 수구 돌레를 새 깃털로 장식한 半臂袍를 입었다.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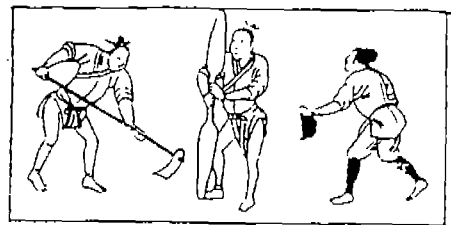


<그림 30> 王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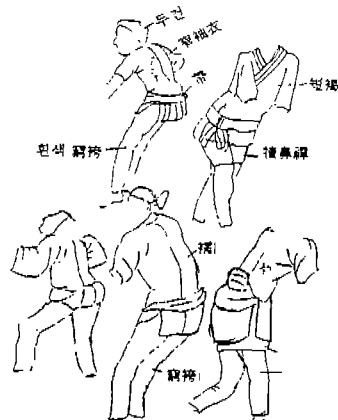
侍女는 쌍수개형에 홍피로 묶는 두식을 하였으며 미색의 대수포의 수구와 아랫단에 흑색단이 있으며 아랫단은 曲居의 형태이고, 허리에는 白暇帶와 紳이 늘어져 있다. <그림 31>



<그림 31> 侍女-2



<그림 32>



<그림 33>

一般人들은 백색의 交領우입의 허리엿 밑이 트여있는 窄袖衣를 입고, 하의는 쇠코잠방이와 같은 좁은 반바지를 입거나 기저귀 같은 것을 두른 형상 또는 백색 궁고를 입었다. 일반인의 의복은 元代의 農民服飾<그림 32>과 그 모습이 아주 흡사하

다. <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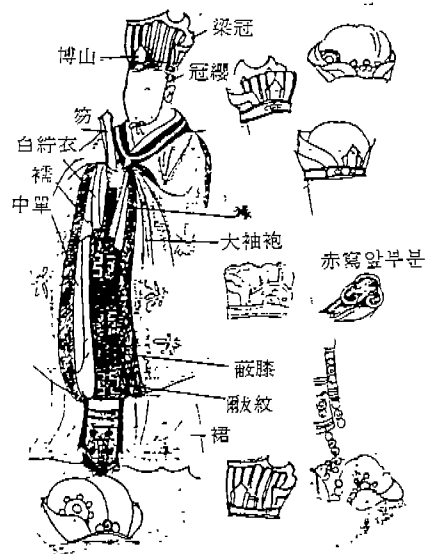
4. 地藏菩薩圖에 나타난 服飾 分析

지방보살도에 그려진 인물은 王, 官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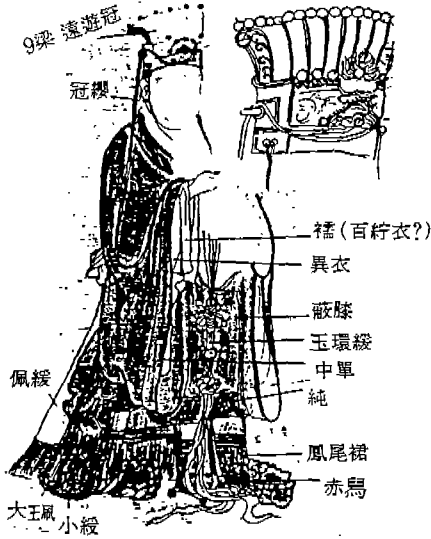
<표 5> 地藏菩薩圖의 服飾構造

種類 人物	頭飾 및 冠帽		袍		袴		下衣		帶		신		기 타	備考
		色		色		色		色		色		色		
王1	①梁冠類		大袖(大)袍, (交領)中單	黃	①袴	白	襪	襪	百假帶	百	烏	赤	蔽膝(赤), 方心曲領 佩綬	袍袖口, 領, 端에 異色縷(갈색, 黑)
	②爵弁冠形			②袴(白紵衣)	白									
	③氈帽形													
王2	透遊冠 (9染)		大袖(大)袍 中單	黃	①袴 ②袴	白 白	鳳尾袴		大帶 百假帶		烏	赤	蔽膝(赤), 玉 環綬 佩玉(小級) 佩綬	袍袖口, 領
官員1	下垂形幪頭	黑	大袖(大) 中單	綠	①袴 ②袴(白紵衣?)	綠 白			紅鞞	紅	靴	綠	笏(白)	
官員2	下垂形幪頭	黑	大袖(大), (圓領)中單	黑 綠	①袴 ②袴(白紵衣?)	綠 白			紅鞞	紅	靴	綠	笏()	靴의 받침과 뒤꿈치로 赤色이 배색되어 있다.
官員3	幪頭	赤	窄袖, (圓領)		袴	綠	寬袴	白	革帶 束帶	紅 米	靴	綠	脚絛	靴의 뒤꿈치에 赤色 배색이 되어 있다.

먼저 王의 관은 前面 중앙에 博山이 가해지고 後面이 角形을 이룬 高麗 특유의 梁冠류와 漢代의 舞樂하는 관리들이 썼었다는 爵弁冠과 유사한 모양에 栴檀이 가해지고 각종 장식이 가해져서 한층 화려한 모양으로 王의 冕旒冠 형태에서 旒 단 없는 관모나 氈帽形의 관모를 썼고 포의 령, 수구, 단에 흑색과 갈색연이 있는 황색의 交領대수포를 입었다. 꽃무늬가 있는 적색폐슬을 허리에 매었고 하의로는 鳳尾袴를 입었다. <그림 34, 35>



<그림 34> 王-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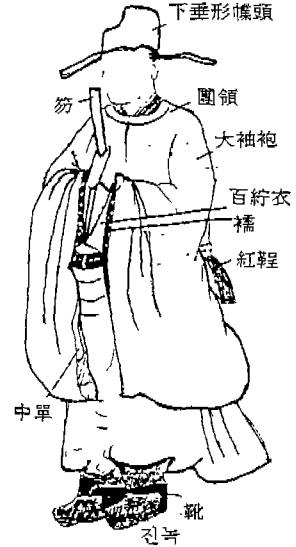
<그림 35> 王-2

관원은 下垂形복두와 양각이 없는 적색복두를 관모로 썼고, 복식으로는 黑綠색이나 黑色의 대수포와 단령의 窄袖를 입고 國俗의 白紵衣에 백색 관수의 유를 입고 綠色이외는 중국식 상의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紅정과 홀을 들고 綠色靴를 신은 것으로 公服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착수포의 앞자락은 혁대로 올려져 있으며 그 밑으로 앞



<그림 36> 官員-1

트임이 없는 중국식 유를 입고 하의로 백색의 寬袴를 입었다. 또 무릎 밑에서 脚結(아유이)을 하였다. <그림 36, 37, 38>



<그림 37> 官員-2



<그림 38> 官員-3 (冥府使者)

V. 結 論

이상으로 고려 1098년에서 1300년대에 작성된 木板畫 및 탕화를 중심으로 불화에 표현된 服飾構造와 形態를 알아 보았으며 본 研究를 통하여 그동안 현존하는 유물이 없이 몇 권의 古畫를 통하여 想像만 할 수 있었던 고려복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高麗佛畫는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나 하는데 문제의 핵심을 두었던 觀經變相의 부분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來世의 행복을 기원하는 고려인의 염원이 밀교적인 의미에서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服飾의 색이 黃金色, 黑, 赤, 綠, 白, 靑色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曼荼羅의 색채구조와 거의 일치되며 고대로부터 밀교의 만다라적인 색채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본다.

高麗服飾의 形態를 정리해보면,

첫째, 冠服에 있어서 王의 관모로서 梁冠과 冕冠이 고려 중기에 이미 착용되고 있었다는 것과, 恭愍王 이후 명의 賜與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유관에 絳紗袍類의 조복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복두는 고려전반에 걸쳐 展脚복두, 下垂形, 절상건형태의 복두가 공용되었으며, 특히 後期로 올수록 하수형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단령에 있어서도 중기 이후까지는 송식이 아닌 단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로써 송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이나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王妃服에 鳥羽狀 깃털장식을 한 半臂袍의 사용으로 보아 표와 더불어 통일신라의 遺制가 고려말기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조선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군의 屨端에 주름장식단을 가한 鳳尾裙이 全代를 통하여 왕실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여인의 계양으로는 고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조선조의 띠구지형 花冠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조의 큰 머리형은 고려의 그

것이 발전된 형태로 본다.

네째, 元服屬期 이후에도 관복은 송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두식에서 開剃하여 宋式의 복건을 쓴 모습만 왕 이하 하급관원에게까지 보여지고 있을 뿐, 복식에서 몽고풍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이것은 元의 帝后 관료들이 관복이나 관모 및 두식, 갑옷, 기마장비 등 거의 宋代의 制度에 의거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유에서 帶가 없어지고 옷고름 形態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고려 1320년대를 전후해서이며, 또한 그 길이도 고려말기까지는 적어도 허리밑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섯째, 一般庶民의 두식에서 鳥巾, 裹巾 등巾類가 사용되었고 특히 高句麗시대의 관모인 升狀帽 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상대의 基本 服飾構造인 窄袖 장유(臂部線)에 궁고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것은 1300년대 이후 高麗末期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農民들의 短褐로 추정되는 장유에서 허리밑 열트임이 있었음은 우리 고유복식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원대의 농민의 복식과 우리의 농민복식이 너무나 흡사한 점이나 우리 상대복식에서 使用되던 장식단이 우리 고유복에서는 차츰 없어진 반면, 당 송의 영향을 받은 관복에서 장식단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上代의 우리군의 屨端에 사용되던 장식단이 발전된 형태로 생각되는 송식의 鳳尾裙과 半臂袍에 사용된 唐式의 鳥羽狀 깃털장식은 邦生民族인 우리 東夷族의 토LEM이 鳳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결국 상대시대에 우리의 夷俗이 漢族에게 전하여져 그들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존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되돌려 영향 받은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文明大, 「韓國의 불화」, 說話堂, 1987.
- 徐兢, 「高麗圖經」, 卷7, 11, 12, 19, 20.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 張忠植, 「고려화엄판화의 세계」, 亞細亞文化史.
- 韓國의 美 7호, 「高麗佛畫」, 중앙일보사, 1987.
- 洪潤植, 「韓國의 佛教美術」, 대원정사.
- 洪潤植, 「曼荼羅大典」, 중앙일보사.
- 왕호근, 「韓國裝身具 美術研究」, 一志社, 1987.
- 金美子, 우리나라 公服에 관한 연구, 服飾 6호 한국복식학회.
- 문광희, 「高麗佛畫 속에 나타난 冠帽 및 髮樣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 朴桃花, 「高麗壁畫의 研究」, 佛教美術 6, 東國大學校 博物館, 1981.
- 關根眞降, 「奈良期 服飾 研究」, 吉川弘文館.
- 道端良秀, 「唐代佛教史 研究」, 法裝館.
- 杉本正年, 「中國服飾考」, 衣生活研究 제71호, 1981. 4.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古代編, 文化出版局.
- 田中千代, 「服飾辭典」, 東京: 同文化院.
- Henny Herald Hansen, 「Mongol Costume」.
- 張元圭, 「中國佛教史」, 高麗院.
- 崔柄憲, 「高麗中後期 佛教史論」.
- 崔昌圭, 「韓國의 思想」.
- 洪庭植, 「高麗 佛教思想의 護國의 開催」, 佛教學報 第14輯, 1977.
- 朝鮮日報, 1981년 12월 27일 1면 머리기사
-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 趙芝薰, 「韓國文化史 序說」.
- 鄭泰燾, 「正統 密教」, 經書院.
- 이은창, 「韓國服飾의 研究」 古代編,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一然, 「三國遺事」 제3권 原宗興法條.
- 李如星, 「朝鮮服飾考」.
- 李東洲, 「高麗佛畫」, 中央日報社.
- 운허용하, 「佛教辭典」, (경남: 법보원, 1981).
- 朴容淑,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一志社.
- 安啓賢, 「韓國佛教史研究」, 同和出版公社.
- 柳喜鄉, 「韓國服飾文化史」, 教文社.
- 趙庚姬, 「복두에 관한 연구」, 梨花女大大學院 碩士論文.
- 金東郁, 「韓國服飾史 研究」.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made through analyzing clothes of human dresses and ornaments appeared in the Buddhist pictures which were drawn at the times of the koryo Dynasty.

Clothes of the Korea Dynasty could be analyzed as below :

First, as for Turban(Doogun), common people used Ogun, Doogun, Byunsangmo and Chaek. For clothes, the style of the era of the ear of the Three-Dynasty. That is, they wore long shirts with narrow sleeves and narrow trousers and skirts. However, around the years of 1320, shirts had no more belt but became to show a kind of ribbon which is called as Gorum, and length of shirts was a bit shortened between hip and waist lines.

Second, as for officials clothes, a kind of Ryangkwan was used through the Dynasty but after the years of 1300, Wonryukwan was also used. In the clothes, Bangshimkokryung was used and the Royals wore full-dress attire which looks like a long gown. Under the full-dress, we can see two different which seems to be a kind of present under-wear.

Third, in public clothes, same type of Danryung. Holl, belt and shoes were used

throughout the Korea Dynasty. In addition, Line(Yeon) was remarkably used skirt was dressed under Danryung by middle of the Dynasty, but at the end of the Dynasty the skirt was replaced with trousers. For Bokdoo, Jeonkak Bokdoo was mostly used at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but in the end of the Dynasty a lower-flap Bokdoo was in the main current.

Meanwhile, we can see that the Korea Dynasty had its own independence in the clothes although the Dynasty was much affected by the Chinese Song Dynasty system. We can

hardly find a Mongolian clothes style in the Korea Dynasty clothes.

Fourth, in Queen's clothes, Banbi and Pyo were used and sleeves were decorated with birds feather throughout the Dynasty.

Lastly, farmer's clothes are quite similar to those of the Chinese Song and Won Dynasties and a decorative line was used in official clothes. These facts make us have a presumption of our Dongii culture might be conveyed to the Chinese in the ancient times but much more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